

국민기초생활수급 여성독거노인의 일상생활 연구

박 미 정
(성균관대학교)

본 연구의 목적은 국민기초생활수급 여성 독거노인의 일상생활 중 주거와 식생활 건강 상태 등에서 드러나는 일상생활 양식이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서의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9명의 여성독거노인을 의도적 표집으로 선정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사례연구 방법 중 설명구축하기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주거공간의 경험은 ‘유랑과 고립’, ‘남의 집 살이’등에서 유랑의식이 드러났으며, 식생활에서는 ‘도시락’, ‘커피’, ‘담배’ 등의 유랑식이 생필품이었으며, 노년의 질병은 존재감을 드러내는 소통의 도구였다.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로의 선정기점에서 생애 전환점을 맞이하는데, 이를 계기로 고단한 삶의 짐을 벗고, 회한의 세월을 돌아보면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갔다. 이를 연구자는 사회적 자원이 빈약했던 여성의 생존전략과 주체적 행위성으로 의미를 부여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국민기초수급독거노인의 주거 복지에 대한 정책적 제언으로, 주택거주 빈곤노인의 주거 점유 안정성 확보방안과 주거비에 대한 현실적인 지표 개발 방안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실천적 측면에서 독거노인들의 식생활 개선을 위한 사회적 기업 설립과 지역단위별 고장수리 전담반 설립방안을 제안하였다.

주요용어: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 여성 독거노인, 일상생활.

■ 투고일: 2010. 4. 10 ■ 수정일: 2010. 6. 4 ■ 게재확정일: 2010. 6. 7

I. 서론

우리 헌법나라 제34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사회보장권을 비롯 권익, 재해예방, 쾌적한 환경과 주거공간, 모성보호, 건강권 등을 포함한 문화적 삶의 영위를 의미한다. 하지만 *trickling down effect*를 전제로 한 우리사회 경제성장 과정은 ‘압축적 근대화(*compressed modernization*)’와 ‘압축적 고령화(*compressed aging*)’¹⁾는 이루었지만 인간다운 삶의 질 보장방안은 변화속도에 부응하지 못하였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 인구 노령화에 따른 노인의 빈곤문제 일 것이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0% 이상이 65세 이상의 노인인구이고, 이중 62.7%가 여성이다. 80세 이상의 고령노인 중 여성노인이 약 90.2%이며, 보호가 가장 필요한 80세 이상 노인 중 31.9%가 여성이다(통계청, 2008). 또한 우리사회의 가장 극빈층으로 볼 수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노인 수급자들 중 여성 노인이 80% 이상을 차지하며, 연령별 분포로 볼 때, 65세 이상 여성 노인 빈곤율은 73.6%로 모든 연령계층 중 가장 빈곤한 계층이다(통계청, 2008).

여성노인 빈곤의 원인을 노년기의 특정한 사건의 결과인지 혹은 노년기 이전 생활의 연속인지에 대해 논란이 있다. 노년기의 특정한 사건(소득활동 중단, 사별, 발병 등)이 노년기에 여성을 빈곤상태로 진입하게 하거나 경제적 상태를 악화시켜 저소득층으로 전락하도록 한다는 입장(Waehrer and Crystal, 1995; Knight 외, 2003) 노년기 이전의 만성적 빈곤의 연장선으로 보는 입장이 있다(Choudhury, 1997:34). 그리고 여성이 노년기 이전에 이미 노동경험 부족과 낮은 임금, 낮은 연금 각출료 등으로 인한 누적된 불리함과 노년기 이후의 긴 수명, 만성적인 질병 등으로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한다는 통합적 입장도 있다(Holden and Kuo, 1996; 강유진·한경혜, 2003; 한경혜, 2004; 이효

1) 『가족·생애·정치경제: 압축적 근대성의 미시적 기초(정경섭, 2009)』에서 저자는 우리사회의 변화 과정을 가족중심주의를 기초로 한 ‘압축적 근대성(*compressed modernity*)’라는 개념으로 설명한다. 압축적 근대성(*compressed modernity*)이란 시간과 공간 차원에서 문명적 변화가 극히 응축적인 면들을 가지면서도 시·공간적으로 이질적인 요소들이 공존하며 매우 복합적인 성격의 문명이 구성·재구성되는 상태를 말한다. 또한 우리사회의 급격한 경제성장의 특성을 ‘압축적 근대화’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세계에서 유래 없는 노인인구의 빠른 증가현상도 ‘압축적 노령화’로 표현하고 있다.

선, 2006).

성차별적 입장에서는 노동시장 구조의 원인, 결혼관계의 해체, 국민연금 제도에서의 성차별, 가정 내에서의 자원 통제권과 처분권의 취약(김미혜, 1998; 남정립, 1992; 박명선, 2002; 이해경, 1997; 최선화, 1999; 최희정, 2005; 한경혜, 2004), 남성 노인에 비해 긴 평균수명, 노동 시장 분화와 열악한 취업여건, 유배우율 감소, 낮은 교육 수준 등이 노후의 소득활동 중단과 건강악화와 결합하면서 더 심각한 빈곤상태에 놓이게 된다(김익기·장세훈, 1999; 백학영, 2006; 최선화, 1999; 최희정, 2005; 한경혜, 2004). 때문에 여성들은 빈약한 물질 토대와 제도·문화적 제약으로 자아의식, 자력, 행동에 있어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의존적인 존재로 살 수 밖에 없었다(이효선, 2006).

현재 생활 또한 부양할 가족이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안되기 때문에 주변 환경으로부터 고립될 가능성이 높고, 사회적 자원의 접근과 획득이 어려워 응급한 상황에서도 신속하게 대처할 수 없어 기본적인 생존권마저 위협받는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다. 이러한 처지를 가족이나 개인의 탓으로 여기고 지나친다면 미래의 노인은 더욱 심각한 사회적 무관심과 방치 속에서 깊고 긴 노년기를 소외와 빈곤의 수렁에서 헤어나 오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예상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우리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가? 우선, 우리사회 복지체계의 최우선 대상인 국민기초수급 대상 여성독거노인의 일상을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할 것이다.

일상이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이며, 매일 되풀이되는 삶이다. 따라서 일상은 진기하고 특별한 '사건'들과는 거리가 멀지만 '사건'은 일상의 바탕 없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공제옥·정근식, 2006). 그리고 일상생활은 우리가 이웃사람들과 상호 소통할 수 있는 실재이자 어떤 다른 영역보다도 우위에 있는 특별한 실재, 자연세계와 자연세계를 통괄하는 일상의 생활세계는 나와 우리의 상호적 행위가 일어나는 경험 현장이며, 상호적 행위가 지향하는 목표영역이다(김종길, 2002:70). 때문에, 빈곤한 여성 독거노인의 일상생활을 통해 우리는 우리사회의 노인복지의 현실과 한계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여성독거노인의 일상생활에 관한 연구에서는 생활사건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남성과 여성 고령 노인의 일상생활을 살펴본 연구(박민자·손문금, 2005)와 재가 및 생활시설에서의 노인들의 일상생활 능력 수행을 측정한 실증적 연구들이 있다(최성재,

1986; 이가옥 외 2000; 이인정, 2009; 유광수·박현선, 2003). 여성 독거노인의 일상생활은 ‘자식이 있어도 의지할 곳이 없음’, ‘자신이 살아온 삶의 한스러움’, ‘하루도 편한 날이 없는 몸’, ‘남은 날이 막막함’, ‘동향끼리 모여 챙겨 줌’ 등이다(양승애, 2001).

기존 연구에서는 일상생활에서의 실태와 문제를 파악하고 사회적 보호가 가장 절실한 존재임을 부각하였고, 이에 대한 사회적 방안과 시책들을 마련하는 등의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지만 사회적 격리를 강화하였던 측면 또한 적지 않다. 이는 국민기초생활수급 여성 독거노인에게 지원되는 현재의 사회적 방안들이 일상생활의 욕구를 기반으로 한 현실적인 대안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미비와 과거와 연결된 일상생활들을 동태적으로 살펴보지 못함으로써 사회구조 및 문화적 열개 속에 존재하는 개인 삶의 주체성을 간과하였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민기초생활수급 여성독거노인 일상생활 영역 중에서 주거와 식생활, 건강상태 등이 지나온 생의 과정과 어떻게 연결되고,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라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드러나는지 탐색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국민기초생활수급 여성 독거노인들의 삶에 대한 공감대를 확장하는 한편 보다 나은 노년의 삶을 위한 방안 마련에 일조하고자 한다.

II. 기존 연구 검토

1. 일상생활과 여성 노인의 빈곤

전통적으로 노인은 가족에 의해 부양이 이루어졌고 부양할 가족이 없는 경우 국가나 지역사회가 부양책임을 맡아왔다. 하지만 산업화, 도시화로 가족 개념이 약해지고, 핵가족화, 여성의 취업률 증가, 가출, 이혼으로 인한 가족해체 및 가족구조와 가치관의 변화는 노인들에 대한 가족부양체계를 더욱 약화시켰다. 그리고 최근 몇 년 사이에 발생하고 있는 경제위기와 실업난 또한 가족의 생활과 직결되기 때문에 노인에 대한 가족 부양책임을 더욱 약해지면서 전적으로 국가에 의존해야만 하는 노인인구는 증가할 수밖에 없었다. 더불어,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경쟁력이 떨어진 사람, 느림, 보수적이라는 인식이 팽배해져 있어서 빠름, 경쟁력, 효율성으로 대표되는 현대사회에서

무관심의 대상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경쟁과 효율성의 논리로 방치되고 배제된 여성 독거노인들의 일상생활은 우리사회 총체적 모순의 단면이라 할 수 있다.

일상적 생활세계는 “인간이 불가피하게 만들고 규칙적으로 참여하고 개입하여 변화시키는 그리고 신체를 매개로 하여 영향을 미치는 그 실재영역, 혹은 이성 역량을 갖춘 정상적으로 각인된 성인이 단순히 주어져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바로 그 실재영역이다”(김종길, 2002). 일상적 활동의 특징은 삶의 주어진 기간 동안 무조건적인 연속성을 의미하며, 삶의 지속적인 기초로서 특징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아그네스 헬러, 1998:115). 개인은 자신의 행위를 통해 일상세계에 개입하고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일상세계의 영역은 이미 역사적으로 형성된 사고방식, 가치, 규범 등이 존재하므로 개인의 행위 가능성은 일상생활세계에 의해 제약을 받게 되고, 실제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다양성과 독창성을 주장하지만, 거시적인 측면에서 볼 때 사회적 일과표(social time table)대로 일상생활을 이행하고 있다(르페브르, 1968 저; 박재환 외 역, 2004). 일상생활은 개인주체들의 행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회성이 내포되어 있으며 사회전체 구조에 대한 자료를 내포하므로 사회구조와 개인 간의 의미 있는 연결점이 일상생활 속에서 표현되고 있다(박재환, 1994; 김선미, 2006). 개인수준에서의 일상생활은 해당사회의 재생산이기도 하지만 생존과 존속의 메커니즘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저소득 여성 독거노인의 연구경향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 여성 독거노인들은 일상생활을 공공부조나 민간 기관에서 제공하는 원조로 생활하기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으며, 집세 혹은 세금으로 지출한 금전적인 여유조차 없는 형편이다. 경제적 빈곤과 함께 심리·사회적 소외로 낮은 자긍심을 가지고 있으며, 식이섭취부족, 빈곤, 사회적 고립, 제한된 거동, 치아손실, 만성적인 질병과 식사를 거르거나 불규칙적인 식사를 하고 있어 영양상의 위험이 크며 영양상태 또한 한계수준에 있다(Waehrer and Crystal, 1995; 김기남·박봉길, 2000; McInnis and White, 2001; Ha and Park, 2002; 석재은 외, 2003; Knight 외, 2003; 백선숙, 2005).

사회적 관계망과 격리되어 있고, 교육수준이 낮고, 독거기간이 길며, 대부분이 전세

나 월세의 영구임대아파트 또는 무료거주자이고, 고독한 존재로서 삶의 질이 상당히 저하된 상태이다(김기태 · 박봉길, 2000; 석재은 외, 2003; 백선숙, 2005; 백학영, 2006; 심문숙, 2007; 이인정, 2009). 특히, 여성독거노인들은 배우자, 형제, 자식, 친인척의 죽음, 실직, 질병 등(감정적인 생활사건으로 인하여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하지만 사회적 자원의 부족으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도 적다(McInnis and White, 2001; 허선영, 2003; Knight 외, 2003; 박민자 · 손문금, 2005; 소광섭, 2007; 이인정, 2009).

여성독거노인 빈곤의 특징은 생애 전반에 걸쳐 경험하는 ‘생애지속형 빈곤’으로, 그 경로가 가난한 친정, 무학, 배우자의 사망이나 이혼 등의 생애 사건들이 빈곤의 계기가 되는데(최선화, 1999; 한경혜, 2004), 이러한 생애과정에 대해 당사자들은 지난날의 삶을 돌이켜보며 자책하고, 현재의 삶이 타인에게 부담되는 존재라고 느끼며, 질병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면서 앞으로의 삶 또한 걱정되고 막연하다고 해석한다(Poter, 1994; Jung 외, 2000; Jang, 2002; 심문숙, 2004).

이렇게 여성빈곤노인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졌거나 진행과정에 있지만 여전히 불쌍한 존재이며, 복지의 최우선 대상이자 소외된 사람들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특히 일상생활에서 가장 중요하면서 진부한 주거와 식생활 및 건강영역은 매우 사적이고 개인적인 영역으로 취급하여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영역의 산물임을 간과하고 있다. 특히, 주거는 지나온 삶의 과정과 결과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현재의 공간이자 생활전반과 연결되는 거점이며, 식생활과 건강은 나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생명과 연결된 것으로 생애 과정 전체가 녹아있는 실체이다. 이는,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개인과 사회구조 속에 형성된 삶의 습성이자 누적된 일상생활의 실체로써 개인과 사회의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된 삶의 총체이자 역사라 할 수 있다.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국민기초수급대상 여성 독거노인의 일상생활 영역 중 주거공간에 대한 경험, 식생활, 건강 등의 매우 사소하고 중요한 일상영역이 과거와 현재를 통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이해하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 참여자 선정

연구 참여자는 광주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70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 여성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의 일상생활을 면밀히 살펴보기 위해 일반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여성 독거노인을 의도적 표집으로 선정하였다. 기간은 2008년 11월부터 2009년 4월까지 총 11명의 연구 참여자를 발굴 면접 하였다. 11명의 참여자 중 연구자가 선정한 기준에 적합한 사례, 즉,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 여성 독거노인이면서 주택에 거주하는 9명을 최종적으로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주택에 거주하는 여성독거노인만을 대상으로 한 이유는 이들의 경우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를 희망하나 관리비에 대한 부담 때문에 입주를 망설이거나 퇴소하는 경우가 있고, 아파트보다 사회서비스 접근성 또한 용이하지 않는 점을 감안하여 빈곤 상태가 더 심각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2. 자료수집

자료 수집은 심층면접과 정기적인 가정방문 및 부분적인 참여관찰을 통해 이루어졌다. 심층면접 단계에서는 면접기록, 관찰, 연구자의 현장노트 등을 활용하여 여성노인 빈곤에 대한 생애과정을 수집하였는데, 본 연구 참여자들의 경우 현재의 시점에서 과거의 삶을 재구성하는 것이므로 실제 체험한 삶의 이야기를 옮겨지는 과정에 화자의 착오, 망각, 회피, 미화, 과장, 추측 등이 개재하여 실제적 진실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사진·서류 등을 요구 수집 하였다. 특히 자료수집 과정에서 참여자들의 달력은 매우 의미 있는 자료였다. 대부분이 무학이거나 노안으로 기록이 힘든 상황임에도 의미 있는 날짜에 대해 기호로 표시를 해놓았는데 생계급여가 지급되는 날짜에 가장 굳고 진하게 표시되어 있었다. 그리고 연구자가 면접을 위해 가정을 방문하면 그간의 밀린 각종 고지서와 영수증을 확인해 달라고 하셨다. 이 과정 또한 연구 참여자와 연구자 간의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고, 이를 통해 참여자들의 생애과정을 이해할 수 있었다. 심층면담은 참여자 1인당 평균 2회, 시간은 1회당 60~90

분 정도가 소요되었고, 어떤 경우에는 3시간 이상이 소요되었다. 그리고 면담 후 개인 사례별 분석과정에서 확인해야 할 부분이 발견되면 전화 통화나 가정 방문 등을 사전 양해 후 실시하였다. 면담은 주로 참여자의 집에서 이루어졌다.

3. 자료 분석

국민기초수급 대상 여성 독거노인의 일상생활을 살펴보기 위해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Yin(1989)이 제시한 사례연구(case study) 방법 중 <유형3>²⁾을 채택하였다. 이는 연구 참여자들이 제시한 자료의 보편성과 특수성에서 주요한 테마를 찾았으며, 사례의 다양한 측면의 상호조건성(inter-contingent lives)을 분석하여 일상생활의 영역 중 주거와 식생활에서 드러나는 특징들을 분석하였다.

4. 연구의 엄격성과 윤리적 문제를 위한 노력

질적 연구는 연구의 엄격성(rigor) 또는 신뢰성이 매우 취약하다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자는 몇 가지 측면에서 노력하였다. 첫째, 연구 참여자가 심층면접에서 자신의 삶과 생활에 관해 솔직히 구술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참여자가 가장 편안하다고 생각하는 장소인 자신의 집에서 일대일로 면접하였다. 둘째, 수집한 자료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부분에서 자료를 수집하고자 하였다. 참여자를 선정하기 전 기관 관계자에게 적합한 참여자를 발굴하여 줄 것을 의뢰하였고, 이를 통해 심층면접이 끝난 다음에는 지역사회에서 참여자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부분 참여를 통해 살펴보았으며, 애매하거나 불확실한 부분은 전화를 하거나 다시 만나서 확인하였고, 심층면접 이후 사례관리 봉사자로 결합하여 정기적으로 방문하였다. 셋째, 수집한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의 객관화를 극대화하기 위해 심층면접 내용을 녹음·필사하였고, 분석한 주요테마들을 노인복지를 공부하는 전문가와 공유한 후 연구 참여자와 공동으로 확인하였다.

그리고 윤리적 보호 장치에 대한 노력이다. 연구 수행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문

2) 이는 다중사례를 단일한 분석단위를 중심으로 연구하는 것임.

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참여자에게 사전 양해를 구하고, 연구 참여 동의서 및 확인서를 받았으며, 연구자로서의 지켜야 될 원칙들에 대해서도 서명하여 전달하였고, 일정 금액의 사례비를 지급하였다.

IV. 분석결과

1.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국민기초생활수급 여성 독거노인의 일반적 특징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연령은 모두 70대로 최저 70세, 최고 79세였다. 참여자들 중 종교 생활을 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눌 수 있는데, 무종교인 참여자 6, 8의 경우에도 과거에는 신앙생활을 하였지만 현재는 다리가 아파서 교회에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혼인관계에서는 대부분이 사별이나(참여자 1, 2, 4, 5, 7, 9), 참여자 3과 참여자 6은 미혼이고, 참여자 8의 경우에는 결혼식은 하였으나 남편과 함께 살지 않는 상태에서 1남 1녀를 입양하고 이혼하였다. 참여자 1, 3, 4, 5, 6, 7은 숫자정도 읽고 수급비가 지급되는 통장을 자신이 관리할 수 있었지만 참여자 2, 8, 9는 숫자 이해에 어려움이 있어 통장관리를 다른 사람이 해주고 있었다. 참여자 5를 제외하고 교육수준은 무학이었다. 참여자들의 독거기간은 최저 3년에서 최대 36년까지로 평균 독거기간은 22.7년이었다. 독거기간이 가장 짧은 참여자 2의 경우에는, 1남1녀의 자녀를 두었으나 아들이 시력상 실로 먼저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 선정되어 함께 살아왔다. 3년 전부터 아들이 정신적 질병이 발병되어 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고 현재는 혼자 살고 있었다. 독거기간이 가장 긴 참여자 7의 경우에는 일찍 사별하고 딸과 함께 살았으나 딸이 결혼하면서부터 혼자 살아왔다.

참여자들의 직업경험은 행상, 가정부, 공사장 잡일, 식당일, 공장일의 경험과 장사나 하숙(참여자 6)등이다. 특히, 참여자 3의 경우에는 미혼인 30대초반부터 입주가정부로 22년을 살았다. 참여자 5의 경우에는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6차례 이상 한국과 일본을 오고가면서 식당일과 입주 가정부로 13년을 살면서 3남1녀의 자식들을 전문대 이상 가르쳤다. 참여자들의 수급기간은 최하 5년에서 최고 14년으로 평균 9년이다. 수급기

간이 10년 이상을 상회한 참여자 3, 7, 8, 9 였다. 이들 대부분은 전통적인 독거노인의 특징을 가진 경우로서 참여자 3의 경우에는 미혼, 무자녀이며, 참여자 7의 경우에는 1녀로 일찍 출가한 후 독거 상태에 머물렀으며, 참여자 8의 경우에는 신혼 초에 이혼하고 1남1녀 입양하여 키워 출가시키고 40대 중후반부터 독거 상태에 있었으며, 참여자 9의 경우에는 1남2녀의 자녀가 있으나 자녀들 또한 부양 능력이 없어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선정되어 살아왔다.

참여자 3을 제외한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자녀가 있었다. 참여자 6과 8은 입양자녀였으며, 참여자 1, 2, 4, 5, 7, 9는 친자녀들이었다. 전통적인 관습에 따라 부모부양 책임이 아들에게 비중이 높은 사회·문화적 분위기를 감안한다면 참여자 5의 경우에는 매우 이례적인 경우이다. 3남이 있으나 장남은 IMF때 부도가 나서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차남은 이혼으로 가정이 해체되었고, 3남은 공황장애를 앓고 있어서 직업 활동을 할 수 없다. 그리고 딸도 가난하다. 참여자들 대부분은 2세대 이상이 사는 주택에서 부엌 딸린 한 칸짜리 방에서 월세나 전세로 거주하였으며, 전세는 500만원에서 900만원에 살고 있었다. 전세 자금은 자녀나 친인척들이 마련해 주었다. 참여자 6의 경우에는 자가였으나 낡고 오래된 집이어서 관리가 불편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 선정과정에

표 1. 참여자들의 일반적 특성

번호	나이	종교	혼인 관계	학력	독거 기간	직업력	수급 기간	건강상태	생존 자녀	주거형태 / 소유유형
1	72	개신교	사별	무학	13년	친정살이	5년	허리디스크, 신경통	2남	전세
2	70	개신교	사별	무학	3년	노점상	6년	고혈압, 당뇨	1남1녀	전세
3	76	천주교	미혼	무학	30년	가정부, 장사	11년	관절염	무	전세
4	75	불교	사별	무학	12년	노점상	5년	혈압, 당뇨시력저하	2남1녀	전세/500만원 월 10만원
5	76	천주교	사별	소학교3년	15년	식당일, 가정부	8년	관절염	시력저하	3남1녀 전세
6	72	무종교	미혼	무학	30년	방직공장, 장사, 하숙	8년	관절, 어지럼증	1녀	(입양) 자가
7	75	개신교	사별	무학	36년	행상, 벽돌공장	11년	혈압, 관절	1녀	전세
8	78	무종교	이혼	무학	35년	바느질	13년	관절, 어지럼증	1남1녀 (입양)	은행융자전세
9	79	불교	사별	무학	31년	행상, 공사장 잡일	14년	관절, 혈압	1남2녀	월세

서 오히려 집이 짐이 되는 경우였다. 하지만 은행 용자에 대한 증명이 가능해 수급권자로 선정되었다. 참여자 8의 경우에는 전세 500만원에 살고 있는데 여기저기 아는 사람과 은행에서 빌린 돈으로 전세를 얻었기 때문에 생계 급여로 이자를 부담하고 있었다. 참여자 9의 경우는 1년 월세 9만원에 살고 있었다. 화장실은 대부분이 밖에 있거나 공동으로 사용하였으며 좌변기는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2. 주거공간에 대한 경험

가. 유량과 고립

사람이 살아가는데 심리적 안정과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일차적 공간이 주거라 할 수 있다. 특히 노인들의 경우, 거주지 중심의 지역사회는 삶의 터전이자 지속성의 공간으로 주거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반복적인 일상생활이자 누적된 역사라 할 수 있다. 때문에, 노인에게 주거공간은 공동체 내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고 인정받음으로서 노년의 정체성이 유지되는 공간이기도 하다. 하지만, 본 연구의 참여자들에게 주거공간은 유량, 고립, 남의집살이로 드러났다. 참여자들의 생애 과정에서 주거공간은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곳이었다. 생계를 위해 잠시 머물다가 조금 더 나은 조건이 있을 것 같으면 이동할 수 있는 '임시거처(臨時居處)'였다.

여기저그서 살았어. 화순에서 살다가 수몰된게 광주로 나왔다가, 자식새끼들하고 살아볼라고 뽕띠기 장사한당한께 그것 메고 전국을 다녔제, 경상도 어디라 했는지 인자는 생각도 안나, 거그서 한 3년 살믄 또 어디로 가고, 또 다른디로 가고(참여자 2).

한 땀 있는 땅뽕끼 조차 도로가 뺏어가고, 보상금은 곳감 빼먹듯 써붙고, 어쩔 것이요. 도시로 나왔제, 아이고, 내 살아온 곳이라, 돈이 없응께 담양에서 나와서 북동, 산수동 굴다리, 양동 발산부락 가난한 동네란 동네는 다 살아봤지라, 그러다 영감이 딱 하니 죽어분께 또 여기저기 새끼들하고 이사 다니고(참여자 7).

나기는 서울에서 났는데, 누가 나를 공부시켜 준다고 하니까 황해도 재령까지 따라 갔지, 근디 공부는 커녕 일만 죽어라 하고 못 살것 같아서 서울로 왔는데, 살기가 막막

합디다. 그래서 누가 광주가자고 해서 16살에 광주로 왔다가, 다시 여수로 갔지(참여자 6).

참여자들이 생애과정 동안 안정된 주거공간에서 생활이 어려웠던 계기는 수몰, 공부에 대한 열망, 가난, 결혼 등이었지만 본질적으로는 ‘고향 떠남(터전상실)’으로 시작된다. 이는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국가권력이나 주변상황들에 강요받았던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고 이로 인해 참여자들은 도심주변부로 이동하였다. 도심 주변부로의 이동은 상실된 삶의 터전을 새로이 만들어가고 먹고 살기 위한 수단마련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농촌에서 도시로, 또 다른 도심 주변부로 반복되는 이동의 시작이었다.

참여자들이 생애과정에서 경험했던 주거공간은 생업을 위해 언제든지 떠날 수 있거나 빨리 벗어나고 싶은 공간으로 이는 ‘고립’이라는 또 다른 모습으로 드러났다. 참여자들이 경험한 고립은 ‘유랑형 고립’과 ‘선택형 고립’으로 나눌 수 있었다.

유랑형 고립(참여자 1, 2, 4, 5, 7, 8)의 특징은 잦은 떠남으로 인한 관계의 단절 또는 일시적 관계맺음이다. 지속적인 사회적 관계를 위한 상호교류보다는 또 다른 공간으로의 이동을 위한 정보교환 수준의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였다. 예를 들어, 참여자 5의 경우에는 생계를 위해 한국과 일본 각처를 유랑하지만 일본으로 출국할 수 있는 사회적 관계(불법 중개업체)에 대한 정보만을 가지고 있었고 그 연계망 또한 매우 단선적이었다. 선택형 고립(참여자 3, 5, 6)은 초기에 2~3번의 유랑을 경험하면서 폐쇄된 공간에서의 삶을 선택하였다. 미혼이면서 혈육이 없는 참여자 3의 경우 입주자정부로 들어가서 22년을 한 곳에서 살았고, 참여자 5의 경우, 4남매 생계비를 위해 일본의 입주자정부 내지는 식당 도우미로 14년을 머물렀으며, 참여자 6의 경우에는 기숙사 시설을 갖춘 방직공장 직공으로 15년을 생활하였다.

그 집에서 한 22년을 살았을 것ियो. 그 집 아그들 씻기고 먹이고 입히고 함실로 내가 다 키웠지라, 내 자식도 그렇게는 못 키울 것ियो. 그랑께 지그 엄니보다 나를 더 따랐는디, 그 집이 망하고, 주인 아저씨가 죽고, 자식들 앞세우고 내가 갈 곳이 없어졌어라. 그래서 그 집 먼 친척고모가 광주로 가자해서 광주로 왔지라, 여기에서 살기 시작한지는 한 3년 됐소(참여자 3).

어찌계든지 새끼들 가르칠라고 일본을 한 6번은 왔다 갔다 했지라, 혼자 벌어서 4남

매 먹여 살려야 된게, 일본으로 가면 그래도 한국보다 더 많이 번게, 식당일, 가정부로 가면, 연결이 되서 가든 나는 많이 받았응게, 한 15년을 그렇게 살았는디. 따지고 보면 그것이 손해디, 중개비, 여비에 남은 것도 없었는디, 그래도 그것이 할 수 있는 일이고, 나중에는 자식들 가지 말라고 해도 안가면 내가 죽겠습디다(참여자 5).

고향상실과 도심 주변부로의 이동으로 시작된 유랑과 고립은 우리사회의 물질 토대가 농업에서 산업사회로 이동하는 격변기적 시대 상황에서 생계를 위해 떠남과 머무름을 반복하는 삶을 살아야만 했던 시대상황과도 맞물려 있었으며, 이는 사회·구조적으로 토건국가 건설을 위한 값싼 노동력의 유입과 방출이 끊임없이 필요했던 시기이기도 하였다.

나. 남의집살이

참여자들의 삶의 과정에서 드러나는 주거공간은 생존을 위해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정처 없는 공간이었다. 구체적으로 현재 살고 있는 주거 공간 또한 3년에서 6년 정도 거주하고 있음에도, 고장 난 곳을 수리하여 현재의 삶의 조건을 향상하려는 노력은 없었으며, 불편하고 지저분한 조건을 바꾸는 것보다는 다른 곳으로 이사하려는 경향이 강했다.

전세로 얻었어, ×같은 집을 얻어갔고 못살어, 앉아서 빨래도 못하고, 정개도 물 나간데도 없어서 씻고 닦아야 하는디 더러워서 못봐, 전개 배갈에 보든 어디서 흙 조차 돌조차 내려와, 옛것저게는 소내기가 와갔고 통 암것도 놔 두도 못 하겠고(참여자 1),

주인한테 말해도 모른척하고, 아이고 냅두고, 내가 참으면 된게, 집구석이 별레, 바퀴벌레도 많이 나오고, 달팽이 그것이 많아서, 막 사방데 서 기어 다닌게, 더러서 죽겠어, 소금물을 요만한 항아리에 담아서 늘 찌끄렸어, 소금 물이 못나오게 한단디, 그래서 더 못살겠어, 어찌께 아파트라도 가야 쓰는디, 이 돈으로 살수있을랑가 싶소(참여자 3).

세탁기가 있드래도 놀 자리가 없어. 여가 인자 요상하게 요렇게 생겼어도 식구가 없고 나 혼잔게, 혼자 들락날락하고 산게, 싸고, 전세 6백짜리거든 식구가 많은 사람은

못살아요. 들락 날락 한데가 좁아갔고 애기들이 다쳐싸서, 처음에 와서는 다리는 불편하게 몇 번 꿰었던게 머리뺨, 캄캄할 때 어둠 때 어디서 놀다가 들음서 불이 없어갔고 쿵쿵 꿩고 여가 요런께 쪼까 싹갑다 싹 것이 비싼 것이고(참여자 7).

주거공간과 생계활동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이들의 직업은 입주가정부(참여자 3, 5), 방직공장 직공(참여자 6), 노점이나 행상(참여자 2, 4, 6, 7, 9), 친정살이(참여자 1)로 구분할 수 있었다. 기숙사 시설을 갖춘 방직공장에서의 생활이나 입주가정부로서의 삶은 고립된 생활을 대변하는 직업군이라 할 수 있으며, 노점이나 행상은 일상생활의 안정과 지속성을 위해 한곳에서 정착하는 직업이라기보다는 유랑자적 생활방식의 전형이었다. 참여자들의 생애경험에서 발견된 공통점은 “자가 소유의 공간에서 안정된 삶을 살아본 경험이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노점상이나 행상으로 일상생활을 유지했던 참여자들의 평균 거주기간은 3년에서 4년이었고, 고립된 생활을 했던 참여자 1, 3, 5, 6의 경우에도 자신의 상황에 맞게 주변 환경을 자신의 의지대로 바꾸고 꾸밀 수 없는 삶의 과정이었다. 때문에, 더욱 떠나야 되는 곳이었고 심과 안정을 도모하는 정서적인 공간이기보다는 임시거처, 고립, 남의 집으로 ‘유랑의식 체득의 거점’이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불편한 현실에 대해 매우 개인적인 방법으로 대처하고 있었다. 참여자 1처럼 ‘별레가 못나오게 소금물을 붓는다거나’, ‘떠나면 된다’는 생각으로 참고 견디고 있었다(참여자 2, 3, 4, 5, 6, 7, 8, 9). 왜 참여자들은 자신의 환경을 적극적으로 변화시키려하지 않는 것일까? 이는 물질토대의 고갈 상태에 놓인 여성이 억압적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저항이자 생존전략으로 볼 수 있다. 즉, 사회적 유랑과 고립, 남의 집 살이 등이 참여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이었기 때문에 사회적 관계의 축소와 단절을 반복하면서 저항할 의지마저도 생계를 위해 포기하고 구경꾼처럼 살아가야만 했다. 때문에 참여자들에게 주거공간은 생존을 위해 보다 나은 조건을 찾기 위해 잠시 머물지만 떠날 수 없는 남의 집이었다.

주거공간에서 안착의 기쁨과 안락함을 체험해보지 못한 삶의 과정은 보통의 노인들처럼 자신이 존재감을 드러낼 수조차 없었으며 거주공간이 불편하고 지저분하다 하더라도 자신에게 적합한 보다 나은 상황으로 만들기 위해 수리를 요구하거나 외부자원을 동원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못하는 것이다. 그리고 언제 입주하게 될지도 모르는 영

구임대 아파트가 현재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으로 여기고 막연히 학습고대하는 것이다.

3. 식생활에서 드러나는 삶의 경험

가. 허기를 때우는 배달 도시락

참여자들은 삼시세끼 식사를 민간 원조기관에서 배달된 도시락에 의존하고 있었다. 배달된 도시락으로 식사를 해결하다보니 특정 식품에 대한 심한 알레르기 반응이 있을 지라도 허기를 채우기 위해 또는 죽음을 면하기 위해 먹고 있었다. 이에 대해 당사자들은 ‘맛이 있건 없건, 좋으나 싫으나 억지로 먹고, 대충 먹는 것, 한 끼 때우는 것, 약을 먹기 위해 허기를 채우는 것’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다.

내가 밥통 돌려 여기다 두면 간밥이 돼서 어제 낮에 끓여가고 한술 떠먹고, 엿저녁에는 안되겠어서 국수 끓여먹고, 한볼테기 담아서 냉장고에 넣다가 약 먹을라고 아까 먹었어(참여자 1).

도시락 찌까씩 남은 놈을 냉장고에다 너봤다 밥술에 너갔고 디갔고 묵어, 반찬도 억지로 억지로 묵어, 돌아맹김서 맘대로 사 묵는 사람들은 저것 갖고 묵도 못한다요. 나는 저것도 인자 맛이 있건 없건 좋으나 싫으나 억지러 묵어, 도시락 나온 놈 갖고 좋으나 싫으나 한 숟갈씩 떠먹제(참여자 7).

찌그 복지회관에서 온 도시락으로 나는 살아라. 점심때 온디 념은 점심 한 끼니에 다 먹은답디다만 나는 도시락 갖고 오믄 많이 못 먹은게 저녁에 또 묵고 아침에는 대충 먹고(참여자 8).

복지관에서 도시락 배달해 주면 그것으로 대충 때우고, 고놈도 남아요. 일요일만 내가 해먹지. 요놈 갖고 기냥 살아, 요놈 도시락 가지고 하루를 살아(참여자 9).

참여자들 중 자발적인 고립을 선택했던 3과 5의 경우에는 입주자정부로 생활하였기 때문에 장보기와 요리활동이 자연스러운 일상의 패턴이었지만 행사, 공장일 등으로 생

계를 유지했던 참여자들이 경우에는 전적으로 도시락에 의존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이는 그간의 삶의 경험이 노년기의 식생활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침을 의미하였다. 이는 주거경험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이기도 하지만 건강을 고려한 식생활 또한 안정된 주거공간에 정착하고 일상생활이 안정되게 유지 지속되었을 때 이루어지는 개인적·사회적 행위라 할 수 있다.

나. 고달픈 인생 여정의 동반자, 커피

참여자들이 즐겨먹는 음식 중 하나는 인스턴트 커피였다. 커피를 즐기게 되는 계기도 추위를 달래고, 고단함을 해소하고, 힘든 일을 위해 건디기 위해 마시기 시작했지만 어느 날부터 생활의 패턴으로 고착되었고, 현재는 허전함을 채우기 위해 마시는 기호식품 중 하나였다.

나는 배가 고파서 못 걸어도 커피 목으면 힘 생겨서 걸어가, 진짜 커피 힘으로 살아 물 많이 타면 싱거와 간에 기별도 안가, 그랑께 살라면 진하게 해서 목어, 누가 나를 병원 데려가 커피 힘으로 견제(참여자 1).

공장에서 일 할 때, 야간교대조로 들어 가든 잠이 쏟아질 때가 있제, 그때는 사발로도 마시고 했는디, 귀한 것 잉께, 애껴 감서, 인자는 안 목으면 허전해, 한 번씩 먹어야 정신도 들고 그래(참여자 6).

일본서 가정부로 일하면서, 정리되면 먹고, 일하기 전에 먹고, 남의 집 살이 하니, 술 목기는 그라고 커피는 눈치 안보고 편하게 마셔도 되고, 새끼들 보고 잡고, 걱정될 때 마시고, 배안에서 사람들하고 얘기하면서 마시고, 인자는 저녁에는 안 마시요, 잠이 안온께, 오전에만 마시요(참여자 5).

겨울에 고물 주우면 얼마나 춥소, 그때 담배도 좋지만 교회에서 얻어 목은 커피가 얼마나 속을 따뜻하게 해주는지 아요. 손도 녹이고, 가슴도 녹이고, 한도 녹였으면 한디, 하루에 네 잔도 마시고 세잔도 마시고(참여자 8).

참여자들에게 커피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다. ‘허기를 채워주고 기운을 보강하는

약, 힘든 야간 노동을 버티게 하는 자극제, 남의집살이의 설움과 그리움을 달래는 친구, 추위를 녹여주는 따뜻한 음료'로 고달픈 삶의 역정을 함께 해온 생필품이었다.

일반적으로 커피는 졸음을 쫓고 생기를 돌게 하는 각성제이기도 하다. 이러한 커피가 참여자들의 삶의 일부 내지는 생필품으로 여기게 되는 계기는 야간노동의 졸음을 쫓고, 지친 육신을 지탱할 수 있는 순간의 자극제가 간절히 필요한 상황에서 가장 저렴하고 쉽게 구입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급속한 경제성장 과정에서 저렴한 비용의 노동력, 주·야간 교대 노동자, 가사 서비스 전담자 등의 저임금 노동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에서 참여자들은 성장의 밑바닥을 떠받칠 수 있는 저렴한 노동력이었고, 커피는 장시간 노동에 저임금의 노동자로서의 삶을 부추기는 향기로운 각성제였다.

다. 가슴의 화(火)를 사르는 기호식품 담배(火)

참여자 스스로 영양을 고려하여 영양을 섭취하는 경우는 참여자 4 뿐이었고, 대부분은 허기를 때우거나 약을 먹기 위해 먹고 있었다. 그리고 참여자 8의 경우 식사보다는 담배를 선호하였는데 이는 혼자 살아온 한의 세월을 버티게 해준 도구이자 동반자로, 이에 대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폐지를 줍고 있었다.

밥은 한 끼 안 먹어도 살지만 요거(담배) 안 피면 못 살어, 속에서 화가 올라와 넘 보 기엔 좋아보여도 화가 들었제. 인제까정 인생을 혼자 살아 나온 인생인데, 요념을 피면 화가 풀어지고 기분이 좋아, 근디 요념을 안 피면 혼자 꼬라지가 나. 담배 값이 모질란 게 고물해 갖고 담배 사지라(참여자 8).

담배는 기호식품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할 수 있다. 가난한 여성으로서의 삶의 과정에서 쌓인 환과 회한을 달래는 수단임과 동시에 여성으로서의 애환을 드러내는 표현방법이자 지배 권력에 대한 저항이었다. 남성의 상징적인 기호식품인 담배를 가난한 여성이 공유함으로써 일상생활에 내재된 지배 권력의 구조들을 해체하고자 하는 의도라 할 수 있다. 권력의 상징물인 담배 값을 마련하기 위해 폐지를 줍는다는 것은 억압적 권력구조는 가장 밑바닥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희생에 의해 내지는 노동에 의해 유지된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주거공간과 식생활에 대한 경험을 종합하면, 참여자들은 주거공간은 유량과 고립, 남의집살이로 점철된 유량자적 삶이었다. 도시락, 커피, 담배의 등은 고달픈 삶과 힘든 노동을 달래는 음식이자 각성제였다. 이는 물질적 토대가 빈약했던 가난한 사회의 여성이 살아가기 위한 적극적인 생존양식이자 생존물이다. 또한 도시락, 담배, 커피에는 몇-가지 공통점이 있다. 휴대가 간단하고, 별도의 조리 기술과 활동이 요구되지 않으며, 허기를 빨리 채워 주고, 그 섭취 시간이 짧고, 소량의 쓰레기를 배출 한다는 점이다. 이는, 개발성장을 위해서는 밤잠을 줄이고, 졸음을 이겨내면서, 고립된 공간에서 묵묵히 일하다가 저항 없이 떠나주는 유량자들이 필요했던 시기에 확산되었던 생필품이었다. 때문에 국민기초생활수급 여성 독거노인의 생존방식인 유량자적 생활양식은 압축적 근대화가 만들어낸 시대의 유물이자 성장과 개발만을 위해 뿌리 채 뽑아냈던 근원지의 상실로부터 시작된 일상생활의 파편화인 것이다.

4. 건강에서 드러나는 생애과정

흔히, 노인들의 건강악화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당연한 것으로 생각한다. 건강은 삶의 지속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노화에 찾아온 자신들의 건강이 자신의 인생 전반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으며, 이를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대해 살펴 보았다.

가. 한(恨), 고생, 가슴앓이로 지치고 병든 몸

참여자들의 건강은 노화에서 오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지나온 삶의 과정에서 누적된 결과로 인식하고 있었다. 현재 앓고 있는 노인성 질환은 이전의 삶의 연장이었으며, 질곡 많았던 삶, 한, 서러움, 가슴앓이, 힘든 육체노동의 총체적 결합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너무나 심정을 꿩잉게 늙어서 이렇게 되네. 성질내면 머리가 똑하니 빙빙 돌아가 그 래서 진통제를 너무 오래 통 먹었어, 사람이 이럴줄 알았으면 묵지 말것을. 멍-하당개, 암 것도 기억력이 없어. 바가지 하나도 못 들어. 병신이어. 다 병신이어, 장애자 등급

급수가 있어서. 내가 왼손잡인데 아파서 손가락도 못들어. 요리고 안 올라가 그 전에 내가 허리디스크가 걸렸어 가운데가 푹 볼거졌어(참여자 1).

내가 모냐 한번 어지럼병 나가지고 아파서 쓰러져가지고. 빙글빙글 사람이 돌고 그냥 집이 돌고.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서 약 먹고 주사 맞고, 나홀 닷세나 그냥 죽을라다 살았어. 내가 있다가 한 번씩 어지럼병이나. 시방 혈압약 먹은지가 십 오년 재인데(참여자 4).

병원에 가든 그래 “할머니, 쪼끄러 안근 일을 많이 했지요? 또 걸어 땀기 일을 많이 했지요?” 요리고 물어봐 옛날에 그렇게 안한 사람이 어디 있소. 허기는 많이 했소. 쪼끄라 안근 일도 많이 허고, 인자 걸음도 먼 장사한다고 머슬 이고 한 백리씩 땀기고, 차를 안타고 걸어 땀기고, 그래나서 다리가 얼른 절단 나부렸제(참여자 7).

참여자들의 만성적인 질병과 거동 불편은 노화로 인한 자연스런 현상이라기보다는 가난으로 인한 유량자적 삶의 결과였다. 행상과 힘든 노동으로 일상생활을 연명하였기 때문에 노년의 건강이 더욱 치명적으로 다가온 것이다. 무엇보다 현재의 열악한 주거 환경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노화로 인해 약해진 관절과 가난으로 점철된 삶의 과정을 고려하지 않는 집안 내·외부는 넘어짐의 원인이었으며, 고지대의 층계나 가파른 운동은 하고자 하는 욕구자체를 막고 있었다. 그리고 비위생적인 주변 환경과 취사시설은 요리활동마저 통제하고 있었다.

나. 만성적인 질병은 존재감이다

참여자들은 아플 때가 가장 무섭지 오히려 죽음은 두렵지 않다고 구술하였다. 참여자들의 독거기간은 3년에서 최고 36년이었으며, 평균 22.7년 이상이다. 때문에 그간의 삶의 과정이 적막함을 벗 삼은 외로운 일생이었다.

인자는 뭐시냐 하면, 내가 안 아파야제, 누가 나를 거두겠소, 그냥 죽어 불면 신간이야 편하고 좋은디. 아퍼 싸면 다 싫어하지라, 병원으로 약국으로 돈 들고 다녀도 좋아하지 않고, 폐만 끼치고, 차라리 짝 죽어불면 쓴디(참여자 3).

이 날 이때까지도 혼자 잘 살아왔는데, 지금 사는 것이 살아있다고 할 수 있겠다, 몸은 고상해도 일본으로 어디로 다닐 때가 사람이고 사는 것이었제, 이대로 살봐에야 죽는 것이 아픈것 보다 나아라, 누가 나를 병원에 데려가고 데려 오겠소, 그것도 하루이틀이제, 그렇게 어짜든지 약 잘 묵을라고 허요. 그랄라면 밥도 묵어야제라(참여자 5).

참여자들이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것은 부양할 사람이 없는 고독한 생활이었다. 오랜 독거생활의 고통을 견디는 것은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챙기고 지키는 것이었다. 참여자들에게 병원가거나 약복용은 생존을 위해 가장 중요한 전략들이었다. 실제로 병원가기와 약 복용은 일과 중 가장 중요한 일이었고, 이러한 행위를 스스로 ‘민폐 끼치지 않으려는 노력’으로 여기고 있었다. 이는 자신의 존재감을 세상 밖으로 드러내려는 끝없는 시도³⁾이다.

노년의 만성적인 질병은 그 동안의 고단한 생의 과정을 반영한 훈장이기도 하였지만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고 소통하는 중요한 수단이기도 하였다. 참여자들이 생계급여 중 상당부분을 의료비로 지출한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가난한 여성 독거노인들을 가장 환대하는 곳이 병원이기 때문이다. 이는 ‘기묘한 조화’이다. 모름지기 병원은 사람의 생명권을 주도하는 주요한 지배 권력 장치이지만 이 공간을 채우고 유지하는 주역들은 가난한 여성 노인들이었다. 이는 사회적 약자를 안전하게 보호하지 않을 때 지배 권력은 무너진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즉, 진정한 권력의 힘은 소외되고 불쌍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환대하였을 때, 창출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며, 여성독거 노인의 ‘무언의 힘 센 저항’이라 할 수 있다.

5.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서의 삶

가. 고단한 삶의 짐을 벗다

가난과 허덕임 그리고 유량으로 평생을 살아왔던 참여자들은 자식들이 성장하고, 결

3) 우리사회에서 늙고 병든 노인을 가장 환영하고 우대하는 곳은 건강과 관련된 의료기관이기 때문이다. 이곳들에서는 노인들의 이야기를 경청해야만하기 때문에 대부분이 노인들에게 있어 의료기관은 단순히 병을 다스리는 기관이 아닌 소통의 공간일 수 있다.

혼하고 자신이 고령화됨으로서 이동 거리를 좁혀가기 시작한다. 예를 들면, 최종 유랑지에서 가까운 곳, 가족이나 친인척이 있는 곳, 자식들이 직장생활을 하는 주변으로 이동하였다. 그리고 유랑생활을 청산할 수 있는 생의 전환점을 맞이하는데, 그 시점은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로 선정이었다. 이를 계기로 참여자들은 생애 처음으로 더 이상 생계를 위해 떠돌지 않고, 끼니 때문에 허덕이지 않아도 되는 안도감을 갖게 된다. 즉,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막연히 머물고 떠났던 임시 거처가 아니라 영구임대 아파트라는 새로운 공간에 대한 기대와 끼니걱정에 대한 해방감으로 고단한 삶의 짐을 벗는 계기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래도 동사무소 양반이 요로고 준계 감사하제, 감사하고 감사하제 인자는 허덕허덕 안 하고, 끼니걱정 안하고, 고놈 갓고 묵고 쓰고 살믄 애는 덜 터지제(참여자 1).

30년 넘게 혼자 살았제, 나이찬께 주제 나이 안 차믄 안쥐, 인자 쓰기 나름이제, 매달 나오니께 맘은 편하제, 편하제, 남의 것 얻어쓰디 편하겄소만(참여자 4).

그래도 인자 그것을 받고 있는께 행복하요. 그것도 못 받으면 내가 어떻게 살았을까 그 생각도 들고, 나는 인자 생각이 그것이거든 국가에서 보조를 못 받아 버리면은 못 살잖아요. 근디 누가 신청하라고 막 그러드라고요(참여자 6).

그래 가지고 내가 사요. 시방. 자녀들 다 힘들어서 용돈을 못주시니까 그놈도 고맙제라 누가 나를 주겄소 참말로 고맙제 업어주게 고맙제. 이날 평생 집이 없이 살아왔어. 난 집이 없이 살았소, 지금생각하면 집은 못살고. 전세라도 통통한것 얻어 살면 얼마나 좋겠냐(참여자 9).

나. 회한의 세월 돌아보기

국민기초생활수급권 대상자 선정을 기점으로 새로운 삶 찾기를 시작하는 여성 독거 노인들은 보통의 노인들처럼 과거의 삶을 회상하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를 갖는데, 후회보다는 서러움이 컸으며, 생각조차 하기 싫은 고달픈 세월이었다고 구술하였다.

나는 남편이 벌여준 것도 없고 친정에서. 암 것도 없고. 아버지는 6.25때 학살당하

고. 다 돌아가셔볼고. 어머니한테 붙어갔고 새끼들 키웠어, 복 없으께, 생각하믄 너무 억울하고, 힘든 것 보다 사는 것이 서럽소(참여자 1).

아이 아버지가 노름으로 다 없애 버렸어. 한 삼년인가 있다가 애기들 굶어 죽게 생겨서 장사를 시작했어. 첫 장시도 하고, 고기장시도 하다가. 그래가지고 고기장시는 이제까지 했재. 암으로 폐암으로, 아고 돌아가시기를 잘했어 지금까지 살믄 뭐하게 돈도 안 벌어주고. 돌아만 다니고 그런디 뭔 정이 있간다. 잘 죽었다 싶어(참여자 4).

친정에서 싹 다 장만해 준 살림살이, 논이요, 밭이요, 집이요 식구들 모르게 나도 모르게 싹 팔아 부렸어. 팔아서 조지고, 살림을 채려서 찌기 객지로 돌아댁김서 살림을 채려서 살아. 결혼만 했재 모르당께 통. 어찌다본께 딸을 하나 낳어, 하나 생겨갔고 딸을 혼자 키워갔고 시집보냈어, 고것이라도 하나 흔적 있은께 혼자 산 보람이 있재(참여자 7).

참여자들에게 남편은 평생을 거쳐 무책임, 도박, 외도 등으로 생활을 더욱 궁핍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에 배우자와의 사별을 생의 중요한 사건으로 인식하지 않았다. 오히려, 힘든 삶을 더욱 허덕이게 했던 존재의 사라짐을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이는, 극도의 빈곤상황에 대한 또 다른 표현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무능한 권력에 대한 불신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빈곤한 여성들이 결코 남성에게 의존하였던 삶이 아님을 드러내는 것이다.

참여자들은 전통가족 내에서 여성 또는 어머니로서의 역할과 생계 책임자인 남성의 역할까지도 수행해야 했던 다중의 주체적 행위자로서, 남성중심의 가부장제 사회·문화에서 남성이자 여성으로 살아왔다. 그리고 이를 위한 최선의 생존수단은 유랑과 고립, 남의집살이였다. 때문에 연속적인 관계축소와 단절 및 다양한 사회적 자원접근의 어려웠던 삶이었고, 생애 전반을 빈곤하게 보내게 된 원인이기도 하였다.

다. 새로운 관계 만들기

생애과정 전반에 걸쳐 지속적인 빈곤을 경험한 참여자들에게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로 선정된다는 것은 새로운 터전에 정착하는 것이었다. 즉, 저임금 노동자, 버거운 가

장, 부양과 양육 및 교육을 책임져야 되는 어머니로서, 가부장제의 속박과 구속으로부터 벗어남을 의미한다. 하지만 노화에서 오는 신체적 제약으로 또 다른 차원의 고립이 시작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자들은 자신의 주체적 존재감을 노인당, 사회복지관계자 및 기관, 종교 활동 등을 통해 드러내고 있었다. 새로운 관계형성 과정에서 중요한 요인은 건강과 접근성이었다. 거동이 가능한 건강한 참여자들의 경우, 경로당, 종교기관 중 거주지에서 걸어갈 수 있는 곳,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 있는 곳을 선호하지만 가깝더라도 사람들과의 관계가 불편하면, 집안에 칩거하거나 혼자만의 방식을 선택하였다. 거동이 불편한 참여자들의 경우 집안에서 사회복지기관에서 방문하는 자원봉사자나 사회서비스 관계자들이 중요한 소통의 수단이었다.

토요일날까정 오고 일요일은 쉬어, 사방간데서 해온당께 모 하믄, 청소하는 아주머니는 이녁 딸자식만혀. 그러고 잘해 통 일허지 마라고 자기 올 때까정 일허지 마라해도, 내 발도 다 주물러주고, 그것도 이참에 끝나고 간단디 보고자른 어짚꼬내(참여자 2).

여가 딱 들어 앉겼으믄 사람꼴도 못봐요. 왔다 가신 양반들 가시믄 꼴을 못보제 인자. 요려고 보내주신 양반들 없시믄 생전 사람꼴도 못봐. 오면 반갑고 좋제, 내 몸이 불편헌게 이리계 왔다 가믄 반갑고 좋긴 헐디, 너무 호강해서 이 다리가 낫도 안하요(참여자 7).

노인당에 있다가 집에 와서 치울 것 치우고 밥 먹고 그러재, 십원짜리 화톳 쳐. 밥도 어쩔 때는 주고 한 열 명 정도 되어 밥값도 다 나오든만. 서구청에서. 거기도 나도 적혀져서 내것도 나올것이요(참여자 3).

교회 가면 맘도 편고, 가난한자는 천당간다고 하잖혀, 그리고 손녀사위가 데릴러 오고 데려다 주고 달도 보고, 밥도 묵고, 그리고 나를 참말로 많이 도와주제(참여자 8).

참여자들이 사회적 관계를 지속하고 생활의 만족감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은 건강관리였다. 참여자들은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것은 아플 때이며, 이는 혼자서 맞이할 수 있는 죽음보다는 사후 처리를 염려하는 것이다. 때문에 건강관리는 독거생활을 유지하게 하는 원동력이자 중요한 소통의 수단이었다. 이를 통해 관계지속을 관리하고 확인하면서 불안과 두려움에 맞서는 적극적인 자기관리였다.

종합하면,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 여성독거노인들의 일상생활 영역 중 주거와 식생활에서 드러난 것은 유랑의식이었다. 국가발전이라는 미명하에 상실된 터전(고향)은 변화에 대한 대처능력과 관계 및 자원의 상실을 의미하였다. 이로 인해 사회적 관계의 축소와 단절을 반복하는 유랑을 강요받으면서, 번영의 그림자 아래서 보이지 않는 존재로 묵묵히 살아야 했던 저임금의 성실한 노동자로서의 삶의 과정이었다. 하지만 이들이, 노년에도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서 우리사회의 가장 가난하고 불쌍한 존재인 이유는 빈곤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어떠한 조건도 갖지 못한, 완전한 무방비 상태였기 때문이다. 즉, 학력, 직장, 전문 기술, 충분한 임금, 승진 가능성, 명확한 목적, 강한 의지, 빛이나 질병 없음, 자원이 풍족한 가족과 친구 망, 정부나 민간기관의 적절한 원조 등등 중 어느 것 하나도 가지지 못했으며, 어느 누구도 빈곤탈피의 조건을 획득하도록 조력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V. 결론 및 논의

빈곤한 여성독거노인의 일상생활 영역 중 주거와 식생활,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으로서의 삶을 이해 한 연구 결과, 주거 공간 경험은 ‘유랑과 고립’, ‘남의집살이’를 통한 유랑의식 체득, 식생활은 ‘도시락’, ‘커피’, ‘담배’ 등의 유랑의식이 생필품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생애 총체적 결과인 노년의 질병은 존재감을 드러내는 소통의 도구였다. 그리고 생애과정 전반을 빈곤에 허덕였던 참여자들이 국민기초수급대상자로 선정되면서 ‘고단한 삶의 짐을 벗다’, ‘회한의 세월 돌아보기’, ‘새로운 관계 만들기’ 차원으로 전환됨을 이해할 수 있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대상 여성 독거노인들의 일상생활에서 주거환경은 위험요소가 내재된 열악한 공간으로 지리적인 고립의 공간에서 배달된 도시락으로 굶주림을 채우는 정도의 식생활이었다. 건강상태는 질곡 많았던 삶과 결합된 오래된 질병들을 안고 있었지만 신체적 이동의 어려움과 의료체계의 접근성 체계의 미비로 방치되고 있었다.

기존 연구에서는 여성 빈곤 노인의 삶의 과정이 남성 의존적인 삶으로 인해 남성의 경제적 무능력과 부제가 빈곤의 원인으로 밝히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여성 스스로 주체가 된 적극적인 삶을 구성해갔다. 친정의 가난, 배우자의 무능력과 가난, 본인 경

제활동의 한계(저임금, 육체노동 등)등의 상황에서도 남성이나 주변에 의존적인 존재가 아닌 자신의 삶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다루는 다중의 주체적 행위자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생을 빈곤에 허덕여야 했던 원인은 빈약한 사회구조적 토대와 여성에 대한 내지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안정장치의 부재였다. 참여자 대부분은 입주정부, 공장생활, 행상 등으로 적극적인 경제활동을 지속하였지만 이러한 직업들이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였거나 여성이라는 이유로 배제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실천적 제언을 하자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정책적 제언으로 노인 주택정책에서 첫째, 주택거주 빈곤한 여성노인들에게 가장 심각한 부분은 지리적으로 고지대이거나 후미진 골목에 위치하여 이동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다. 신체적으로 이동이 자유롭지 못하고, 긴급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지리적 위치는 고립과 위험 상황에 대한 방치이기도 하다. 때문에, 주거 빈곤에 대한 정책 중 하나는 주택거주 빈곤노인의 주거실태를 정확하게 조사하여 주거의 점유 안정성과 노인의 신체조건에 부합하는 주거환경을 마련할 수 있는 기본 방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주택거주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 독거노인들의 주거공간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국민기초수급대상 노인의 주거공간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주택거주 대상자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이다. 국가 차원에서 주택을 매입 또는 임차하는 방식으로 주택을 확보하여 노인의 이동 안정성과 사회서비스 접근성이 용이한 공간으로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빈곤 노인의 주거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부담가능한 주거비에 대한 현실적인 지표를 개발하는 것이다. 빈곤노인의 상황에 맞게 월임대료, 이자비용부담, 주택금융의 접근성 등을 포함하는 주거비를 책정할 수 있는 다차원적 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 실천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 여성독거노인들의 식생활 개선을 위해 사회적 기업 설립이 확대 될 필요가 있다. 빈곤한 독거노인들에게 주로 제공해왔던 도시락 배달서비스 사업을 질적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노인들을 위한 '노인 식사 사업단'을 각 해당 지역별로 설립하여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이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중심으로 배달되었던

도시락도 개인 취향을 고려하여야 하고, 거동이 가능한 노인 분들은 근처 식당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식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둘째, 주택거주 빈곤 여성 노인의 경우, 불편한 주거조건들을 개선하려는 강한의지 보다는 참고 견디는 경향이 매우 강하다. 예를 들면, 전구 교체만으로 해결될 상황을 캄캄한 채로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때문에, 주택거주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고장수리 전담반’을 지역사회 차원에서 조직하여, 일상생활에서 사소하지만 크게 불편을 겪는 것들을 언제든지 개선,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거동 가능한 주택거주 빈곤 여성노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곳은 노인당이다. 이곳에서 화투치기로 일과를 보내고, 식사는 도시락으로 대충 때우는 것이 일상생활이었다. 노인당 프로그램에 대한 사례관리 체계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즉, 지자체별로 지역적 특성과 거주노인들의 상황을 고려한 노인당 프로그램이 창출되고 관리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노인당에서 ‘요리의 날’을 정해서 요리 도우미를 파견하여 즐겁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프로그램들도 그 방안 중 하나일 것이다.

후속연구를 위한 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기초생활 수급 대상 여성 독거노인들 중 주택거주 여성 노인만을 대상으로 연구되었다. 이후 연구에서는 아파트 단지 거주 노인 또는 남성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한 비교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가족의 부양체계에 대한 사회적 변화를 가져왔던 IMF는 빈곤 노인들의 증가와도 연결된다. IMF 이전에는 전통적인 독거노인들이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이었다면, IMF를 기점으로 조기퇴직, 사업실패로 인한 IMF형 빈곤 노인들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시기적 특성들을 고려한 연구들이 필요하다.

박미정은 성균관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박사과정을 수료한 후 현재 성균관대사회복지연구소 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여성빈곤, 다문화 가정, 결혼이민 여성 등이며, 현재는 결혼이민여성의 이혼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E-mail: mjp680@naver.com).

참고문헌

- 강유진, 한경혜(2006). 한국여성노인의 생애사 분석을 통한 노년기 삶의 이해. *한국가족관계학지*, 7(3), pp.99-126.
- 공제옥, 정근식(2006). *식민지의 일상 지배와 균열*. 서울: 문화과학사.
- 김기태, 박봉길(2002). 독거노인의 생활만족도와 사회적 지지망. *한국노년학연구*, 20(1), pp.153-168.
- 김미혜(1998). 한국여성노인의 빈곤현황 및 대책에 관한 소고. 정진영 교수 정년퇴임 기념논총: 한국사회사업의 쟁점과 과제, pp.91-113.
- 김종길(2002). 거대이론의 위기와 일상성의 재발견: 현상학적 행위이론의 비판적 재검토. *사회과학연구*, 7, pp.67-92.
- 남정림(1992). 여성노인의 빈곤화 원인과 정책에 관한 여권론적 접근. *여성연구*, 10(4), pp.85-110.
- 박기남(2004). 독거여성노인의 삶과 의식에 관한 연구-생애구술사 자료를 중심으로. 한림대 고령사회연구소 학술 발표 자료집.
- 박명선(2002). 여성노인의 일과 빈곤-전북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36(2), pp.175-204.
- 박민자, 손문금(2005). 고령 여성과 남성의 일상생활. *사회과학연구*, 11, pp.121-145.
- 박재환, 일상성, 일상생활연구회(2004). *한국현대사회의 일상문화 코드*. 서울: 한울아카데미.
- 백학영(2006). 저소득 독거노인의 빈곤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사회복지연구*, 31, pp.5-39.
- 소광섭(2007). 도농복합도시 노인의 사회적 지지와 생활만족도 연구. *한국노인복지학회*, 38, pp.7-30.
- 석재은, 김용하, 김태완(2003). 여성의 빈곤실태 분석과 탈빈곤 정책과제 개발.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심문숙(2007). 저소득 독거노인의 생활경험. *한국보건간호학회*, 2(2), pp.171-181.
- 안진(2003). 저소득층 여성 노인의 일상생활과 복지욕구. *한국노년학연구*, 12, pp.85-110.
- 양승애(2002). 저소득 독거 여성노인의 일상생활 체험연구.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

학교, 서울.

유광수, 박현선(2003). 독거노인과 가족동거노인의 건강상태에 관한 비교 연구. *한국노년학*, 123(4), 163-179.

이인정(2009). 초고령 노인의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사회적 요인들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1(1), pp.359-381.

이혜경, 최은영(1997). 한국여성 빈곤의 원인과 결과. *연세사회복지연구*, 4, pp.142-185.

이효선(2006). 질적 연구에 의한 한국 노인들의 삶의 이해. *노인복지연구*, 31, pp.73-93.

장경섭(2009). 가족 · 생애 · 정치경제; 압축적 근대성의 미시적 기초. 서울: 창비.

최선화(1999). 생애주기에 따른 여성노인의 빈곤원인. *한국가족복지학*, 3, pp.187-211.

최성재(1986). 노인의 생활만족도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서울: 이화여자대학교한국문화연구원.

최희경(2005). 빈곤 여성 노인의 생애와 빈곤형성 분석. *노인복지연구*, 27, pp.147-174.

통계청(2004).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서울: 통계청.

한경혜(2004). 생애사 연구를 통한 노년기의 삶의 이해. *한국노년학*, 24(4), pp.87-105.

허선영(2003). 도시 저소득층 독거노인의 사회적 관계망과 생활만족도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서울.

Cohen and Wills, T. A. (1985). Stress, social support, and the buffering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98, pp.310-357.

Cohen, Sheldon and Syme, S. Leonard. (1990). Issues in the study and application of social support. In Sheldon Cohen and S. Leonard Syme. *Social support and Health*, New York: Academic Press, pp.3-22.

Choudhury, S. (1997). Life-Cycle Aspects of poverty among older Women. *Social Security Bulletin*, 60(2), pp.17-36.

Ha. M. & Park. H. S. (2002). A study on health status & nutritional condition of solitary elderly in urban city *Korean Gerontol Nurs*, 4(2), pp.123-133.

Hoden, K C and H. D. Kuo. (1996). Complex Marital Histories and Economic Well-Being. The Continuing Legacy of Divorce and Widowhood as the HRS Cohort Approaches Retirement. *The Gerontologist*, 36, pp.383-401.

Jang, S. J. 2002. Factors influencing quality of life of solitary elderly. *J Prev Med Pub*

Health, 37(2), pp.127-132.

- Jung H. J. Kim. T. H& Lee. D. S. 2000. A study of life satisfaction of solitary woman elderly. *J Korean Gerontol Soc*, 20(1), pp.153-168.
- Knight. Tess A. Ricciardelli. Lina. (2003). Successful Aging: Perceptions of adults aged between 70 and 101 years.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56(3), pp.223-245.
- McInnis. G. Y. & White. J. H. (2001). A phenomenological exploration of loneliness in the older adult. *Arch Nurs*, 33(6), pp.812-819.
- Porter. E. J. 1994. A phenomenon of older woman lived experience. *Adv Nurs Sci*. 17(2), pp.54-65.
- Warehrer, K. and S. Crystal. (1995). The impact of coresidence on economic well-being of elderly Widows. *Journal of Gerontology; Social Sciences*, 50(4), pp.250-258.
- Vinokur, A. D. & van Ryn, M. (1993). Social support and undermining in close relationships: Their independent effects on the mental health of unemployed pers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5, pp.350-359.

The study of daily life of aged women living alone who receive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Program

Park, Mi Jeong

(Sung kyun kwa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understand the daily life of aged women living alone who receive the government's livelihood subsidy on a daily basis. To accomplish this purpose, I recruited 9 aged women living alone by a purposive sampling.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from the explanation- building of case study. In research findings, I presented three dimensions of the daily life; the experience in residential, food, government's livelihood subsidy of life. The theme of the first part is 'wandering and isolation', 'working as a domestic servant'. The theme of the second part is a 'lunchbox', 'coffee', 'tobacco'. The theme of the last is the right of the 'take off the burden of exhausting life', 'retrospection of regretful life', 'developing a new relationship'. According to these results, I offer suggestions Housing and welfare for the elderly for policy and, Dimensions of community practice and further researches.

Keywords: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Program, Aged Women Living Alone, Daily Life